

반기문 외교교통부 장관이 10월 9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공석회의에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차기 유엔 사무총장 단일후보로 추천됨에 따라 사실상 유엔 사무총장에 내정되었다. 유엔은 14일 새벽(뉴욕시간 13일 오후) 총회를 열어 반 장관을 다음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총회의 추진을 받으면 반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 5년의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반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진출은 반 장관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경사로 크게 축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유엔의 행정 책임자로서 반 장관의 책임과 의무는 실로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유엔의 3대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저개발 국가의 개발과 빈곤타파, 인권보호 실현 등 현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단일후보로 추천되던 날 북한이 핵 실험을 하는 바람에 국제정세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서 그의 말대로 '기뻐해야 할 순간에 무거운 마음'이 앞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6차회담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장기화



불자 세상보기

박 찬
시인 · 前 서울신문 논설위원

UN, 반기문 총장 시대

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북핵문제의 해결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테러리즘과 함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가 떠맡아야 할 당면 과제가 되었다. 또한 그동안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일부 선진 국가들의 '유엔무용론'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한 유엔의 개혁도 그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반 장관에게 바라는 것은 비록 유엔 사무총장이 192개 회원국의 다양한 이익을 조화롭게 대변하는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한국의

이익을 위해 일해줄기를 바라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문제 해결에 특히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한국의 외무부 장관이 아닌 이제는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공헌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것은 반 장관이 한국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반 장관의 총장 추천은 아시아의 몫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반 장관 개인의 역량과 매력

도 많이 작용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중국이 아시아 지분을 강력히 주장한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 만큼 아시아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역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장차 미국을 대적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둘러싼 이 지역의 구조적 불안정을 비롯해 빈곤과 저개발, 배타적 민족주의의 확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무총장 선출과정은 통해 알 수 있듯이 유엔은 5대 상임이사국이 좌지우지 한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외교 수단으로서 유엔을 적극 활용하려 한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대다수 회원국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특권 국가들과의 이익이 상충될 때 중간자로서 조정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엔 권력구조의 개편,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 강화 등 유엔의 개혁을 통해 21세기 유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7년 외교관으로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이 새로운 기구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반 장관의 포부에 기대를 걸어본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사람이 스스로를 모독하지 않는데 남이 모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기에 언제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데 힘써야 하고, 스스로의 공동체를 화합된 모습으로 지켜 나가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말이 가장 진실하게 요구되는 곳이 바로 불자들과 불자들의 공동체이다. 그 가운데서도 청정성과 화합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귀감이 되어야 하는 곳이 스님들과 스님들의 공동체인 출가승단이다.

그러한 기대와 여망이 집중되기에 스님들과 승단의 조그만 잘못도 일파만파 식의 큰 파장을 불러 오게 마련이다. 뜻있는 사부대중 모두가 이러한 과정에 가슴을 채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아직도 불법 자체의 수승원칙조차 도매금으로 조소와 의심의 대상이 됐던 수모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오는 10월 26일 열리는 조계종 제14대 중앙총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는 불자들과 국민의 눈이 복잡한 빛을 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일들이 과거 거대 중

청정선거, 청정종단의 토대

단의 큰 행사에서 심심찮게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총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죄경력자들이 총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중무원법 개악이 있었기에 한층 우려 섞인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

선원 강원 출원 등 직능 대표들의 총회진출 요구 등의, 당연히 하고 상식적인 일임에서도 지켜지지 않았던 일들이 이번 총회선거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을 지도 큰 관심거리다. 이미 의혹이 갖든 눈초리들이 집중된 마당이기에 의혹의 대상이 될 만한 의원이 선출된다면 아무리 변명해도 의혹을 확증시키기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가 또 지켜지지 않는다면 청정승단에 대한 불자들과 국민의 존경심이 얼마나 남을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세속적인 절차와 제도들도 스님들이 운용하니 정말 심상한 초세간적인 맛이 난다는 찬탄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바람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주문으로 비웃어지는 것이 오늘의 종단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습이 이번 총회의원 선거부터 나타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대한다.

성대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 조사

오는 11월 이사회와 총장 선임을 앞두고 동국대 교수회와 노조가 9월 28일 총장 후보로 이황우 교수(경찰행정학과)와 보광 스님(선학과)을 선출했다. 이사장 영배 스님은 교수회와 노조가 선출하는 총장후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총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 고조가 예견되고 있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는 총장이 갖춰야 할 자질을 묻는 독자여론조사를 했다.

"동국대 총장이 갖춰야 할 자질 가운데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문독한 신심 △전문경영능력 △발견기금 유치능력 △구성원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 △종단의 지원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수위를 차지한 항목은 전문경영능력으로, 75명(34%)이 선택했다. 그 뒤를 구성원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61명, 28%)과 문독한 신심(57명, 26%)이 이었다. 발견기금 유치능력(14명, 6%)이나 종단의 지원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11명, 5%)을 꼽은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정리·박익순 기자
(조사기간 9. 20~10. 10. 아침 21명)

동국대 총장이 갖춰야 할 자질

■ 문독한 신심	57명(26%)
■ 전문경영능력	75명(34%)
■ 발견기금 유치능력	14명(6%)
■ 구성원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	61명(28%)
■ 종단의 지원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11명(5%)

특별기고 한글창제 560돌을 보내며

10월 9일 한글날이 지나갔다. 올해는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승격된 뒤 처음으로 맞는 한글날이라 그 의미가 컸다. 그래서 560돌을 맞은 한글날 기념식장에 대통령이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글날은 그 의미에 비해 절망하게 지나갔다.

인터넷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은 급격하게 언어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채팅언어는 외국어를 방불케 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고받는 문자를 역시 의사소통의 기본 기능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언어로서의 질서는 잃은 지 오래다. 그러나 채팅과 문자 메시지가 갖는 편리성 뒤에는 우리의 언어생활 자체를 왜곡시키는 무서운 '습관'들이 침략자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원시신앙 가운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족이었던 우리 선조는 자신을 '나'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의 '나'는 '라'가 변한 말이다. '라'는 태양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한다. 우리 선조는 자신을 태양과 동일시하는 높은 기상을 가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박병식 선생은 우리말의 원시조어에서 우리 민족의 웅혼한 기상과 드넓은 세계관을 함께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말은 바로 우리의 정신이고 삶의 지향이었던 것이다.

BC 4천년전 쯤에 문자로 된 가장 오래된 기록을 남긴 수메르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빠(abbā)'라 부르고 어머니를 '아마(ama)', 아내를 '마라(mara=여자)'라 불렀다. 오늘날

우리말과 흡사한 것은 우연일까? 세계적으로 중국의 문자로 알려진 한자도 우리의 선조인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주장에 나는 공감한다. AD543년에 만들어진 한문사전 <육편>에는 한자를 읽을 때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4성 즉,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 그것이다. 이 4성의 발음기호를 따라 읽어야 한자의 정확한 뜻이 전달된다는 것이다. 평성은 낮지도 높지도 않게 고르게 말하는 소리다. 상성은 강하게 높이 부르짖는 소리이고 거성은 분명하게 슬픈 듯이 멀

게 말하는 소리다. 입성은 짧고 촉급하게 거두어 감추는 소리로 'ㄱ' 'ㄷ' 'ㄹ' 'ㅂ' 으로 끝나는 소리가 해당된다.

그런데 여기서 입성은 계절로 치면 겨울에 해당하는 발음이다. 겨울이 없는 곳에서 역사가 시작된 중국의 화화족(한족)들은 입성을 발음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북녘 북녘(北)을 발음 할 때 입성의 발음기호대로는 '북'이라 일음절로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일음절로 발음하지 못하고 '베이'라 한다.

<육편>의 30% 이상이 입성 발음인 것으로 볼 때 한자는 겨울이 있는 지금의 동북3성(길림 요녕 흑룡강)과 하북성 산서성 산둥성 등의 옛 동이족의 활동무대에서 만들어진 문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고대 일본어와 현대일

우리말과 글 속 민족정신 바로알자

분어를 연구하면 거기에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언어가 상당히 스며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역사의 시조가 우리 선조이니 그럴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이렇게 보면, 우리민족은 한자와 한글의 모태라는 가립문자, 이두문자, 한글 등 네 가지의 문자를 창제한 위대한 민족이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대한 말을 위대한 글로 표현하기 위해 우리민족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다.

우리말에 담긴 우리민족의 정신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아비'가 '안에 있는 해'를 뜻한다는 것과 '아이'가 '작은 해'라는 것은 다 아는 얘기다. 아버지의 '아'는 '높다' '크다' '빛난다'는 뜻이고 '비'는 본래 '하'였는데 태양을 뜻하는 말이다. '지'는 소유격의 의미다. 즉 '아버지'의 원어는 '아하지'이며 '높은 태양인 사람'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는 높은 태양이며 그의 아내는 집안의 태양이며 그 부부가 낳은 아이는 작은 태양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태양신을 숭배했던 선진부족이 우리의 선조였고 그들의 말과 문자가 우리의 핏줄기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 바탕은 바로 태양과 같이 스스로 밝고 찬란한 인격에 대한 지향이었다. 언어질서는 사회질서이고 민족정신의 반영이다. 우리말과 글이 더 이상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말과 글에 스민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저변부터 확대해야 한다.

강동민(한민족문화연구원)

'연대' 민명 심민섭

부처님 손바닥에 올려놓기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물어만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친법사

책자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경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삼담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신비의 마이산 탐사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탐영제 방생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

진안 마이산 탐사

063)433-2900, 0303 432-0652, 0072